

Monday 2/7

빌 3:11-12

11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3 장 7 절부터 11 절까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길을 보여 준다. 12 절부터 14 절까지에서 바울은 7 절부터 11 절까지에서 제시한 것들을 자신에게 적용한다. 12 절에서 그는 말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바 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잡으려고 추구하겠노라」 헬라어에서 온전히 이룬다는 뜻은 또한 완전하게 되며 생명 안에 성장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바울의 의미는, 그는 아직도 자라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완숙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이 많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체험이 그렇게 많은 바울도 이미 온전케 되었다고 하거나 이미 얻었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그러한 태도를 얼마나 더 가져야 하겠는가!

3 장 10 절부터 14 절에서 바울은 뛰어난 부활을 강조한다 11 절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라고 말한다. 바울의 노력은 이 뛰어난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다. 12 절에서 그는 계속하여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잡으려고 추구하겠노라」 고 말한다. 여기서 바울은 그가 아직 뛰어난 부활에 이르지 않았음을 시인하지만 그는 그것을 붙잡고자 계속 추구했다 이 뛰어난 부활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바울을 붙잡았으며, 이제 바울의 갈망은 뛰어난 부활을 붙잡는 것이다. 바울을 붙잡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로 뛰어난 부활을 획득케 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11 절과 12 절에 있는 뛰어난 부활은 바울의 목표요 그의 추구하는 대상이었다.

12 절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잡으려고 추구하겠노라」 에서 「잡힌 바 된」 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또한 「얻음」, 「붙잡음」, 「소유를 얻음」 을 의미하기도 한다. 간단하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얻음」 이라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얻어진 바 된 그것을 얻기를 열망했다. 바울은 개심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얻어진 바 되었다. 그리스도는 바울로 하여금 그분을 얻게 하려는 의도로 바울을 얻으셨다.

주님은 우리로 그분을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소유하셨다. 이것이 우리를 붙잡으신 그분의 목적이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분을 얻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로 그분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잡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글을 쓰고 있었을 때조차도 자신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었다고 여기지 않고. 아직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분을 추구하고 있었다. 빌립보서 3 장에서 바울은 「얻다」, 「획득하다」, 「붙잡다」 를 말하는 세 개의 헬라어를 사용한다. 얻는 것이나 획득하는 것이나 붙잡는 것은 의미가 매우 가깝다. 이 표현들 중 가장 강한 것은 「붙잡다」 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붙잡게 하려고 우리를 붙잡으셨다.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얻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얻는 생활이다. 당신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 이것이 심각한 질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생명이 자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은 정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 정도이다. 우리는 모두 생명 안에 자라기 위해 그리스도를 얻을 필요가 있다. 영적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많이 얻었는가에 따라 측정된다.

바울이 12 절에서 「-을 수 있다면」 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가 그의 생명의 성장에 대해 확신하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옳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성장에 대한 것은 그렇지 않다.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 생명이 자랐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그만한 분량까지 자라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는 바울과 같이 「... 잡을 수 있다면 ...」 라고 말해야 한다.

...

바울은 성숙한 성도였고 경험이 많은 사도였지만 아직 얻었다고 하지 않고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완전한 누림을 얻었거나 생명 안에서 온전히 성숙된 자로 여기지 않았다. 물론 그는 일반적인 믿음에 의해 일반적인 구원을 얻었다(딤후 1:14-16).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여전히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다. 더욱이 바울은 부활의 뛰어난 부분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었다. 뛰어난 부활로 불리우는 부활의 이러한 부분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추구해야 하며, 경주해야 하며, 우리의 달려야 할 길을 승리로 마쳐야 한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거듭났으나 아직 온전케 되지 않았고 생명 안에서 성숙되지 않았다. 우리가 주님께로 회심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도록 그리스도에 의해 얻어진 바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아직 얻지 못하고 아직 이루지 못한 자들로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테디, 23 장, 53 장, 23 장)

Tuesday 2/8

빌 3:12-13

12 내가 이미 획득하였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힘을 다하여 추구하는 것입니다.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1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2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3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각주에서 발췌

13¹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를 상당히 체험하고 얻었지만, 아직 자신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체험했다거나 최대한으로 얻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목표, 곧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한 정도로 얻는 것을 위하여 힘을 다해 추구했다.

13² 바울은 가장 충만하게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유대교에서의 체험들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과거의 체험 가운데 머무르지도 않았다. 그는 뒤의 것을 잊어버렸다. 우리가 과거의 체험을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문다면, 그 체험들이 아무리 참된 것이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더욱더 추구하는 데 방해가 된다.

13³ 그리스도는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시다. 우리가 소유해야 할 그분의 풍성은 광대한 영토와 같다. 바울은 이 영토의 가장 먼 곳까지 이르기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하고 있었다.

라이프스테디에서 발췌

빌립보서 3 장의 지식까지도 포함하여, 우리는 성경 지식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함이 필요하다. 헬라어로 「추구한다」는 말은 「핍박한다」로 번역될 수도 있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소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구원받은 후에 그가 매우 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핍박한다고 말할 정도로 그리스도를 추구했다. 어떤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그를 괴롭혀서 그 사람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바울은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를 괴롭혔고 그리스도를 가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소극적으로 핍박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에 의해 얻은 바 되었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핍박했다. 왜냐하면 그는 적극적인 면에서 그리스도를 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핍박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가게 하지 말라. 그분을 괴롭히라. 그분을 핍박하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은 소모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핍박함으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소모해야 한다. 우리의 힘과 함께 우리 전 존재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소모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추구할 필요에 대해 감명을 갖기 바라고, 핍박하는 식으로까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감동되기를 바란다. 그리스도가 당신으로부터 떠나도록 허락하지 말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을 적극적인 면으로 핍박하라 그러면 당신은 그분을 얻게 될 것이다.

...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길에서 첫 번째 면은 우리 자신이 얻은 줄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에게 한 가지가 필요하다. 그것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추구하는 것이다.

...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3 장 14 절의 그 상이 천년 왕국의 누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따질지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당신이 이 해석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에게 우리를 위한 상이 있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 빌립보서 3 장의 문맥에 따르면, 목표와 상은 둘 다 그리스도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바울이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얻으셨다고 말했겠는가? 12 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을 수 있다면 잡으려고 추구하겠노라」. 다음의 13 절과 14 절에서 그는 계속 말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하여 추구하노라」 나는 하나님께서 쫓대를 세우셨고 상을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주의하라고 강조한다. 나는 또한 당신이 좋은 경주를 하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추구함으로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강조한다. 나는 앞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라고 믿는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있는 밝은 장래,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를 가장 높은 정도로 체험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이자.

...

오늘날 기독교는 산산이 부서져 있고 혼돈되어 있기 때문에, 감동이나 능력이나 권위가 없다. 그렇게 타락한 상황을 치료하는 법은 무엇인가? 주님의 회복 안에서 발견한 그 치료법은 오직 우리의 놀라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놓는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다른 민족과 문화를 가진 믿는이들을 진실로 하나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민족적인 철학이나 특성조차 기꺼이 해로 여길 만큼 그리스도를 추구하자. 우리는 우리 안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장소를 점령하는 깊숙이 감추어진 바위 같은 이러한 것들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 지적한 바대로, 우리의 국민적인 특성은 그리스도의

대치물로서 대적 사탄에게 사용되고 있다. 대적은 우리의 존재 안에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근거를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추구할 생각을 갖고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행할 생각을 갖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공물을 베푸시기 바란다. 이러한 원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쫓대를 향하여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3 장, 24 장)

Wednesday 2/9

빌 3:13-14

13 형제님들, 나는 아직 내가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한 가지 일만을 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들을 향하여 힘을 다해 수고함으로써,

14 나에게 주실 1 상을 위하여 2 쫓대를 향해 3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나를 4 위로 부르셨습니다.

각주에서 발췌

14¹ 이것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를 최고도로 누리는 것이며, 신약의 경주에서 승리한 경주자들에게 주는 보상이다.

14² 쫓대란 그리스도를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얻는 것이다.

14³ 3 장 각주 12 참조.

14⁴ 위로 부르신 것은 상을 획득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상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에서, 곧 하늘에서 부르셨다. 이 하늘에 속한 부름(히 3:1)은 3 장 20 절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국적과 일치한다. 그것은 육체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르신 땅에 속한 부름이 아니다. 위로 부른 것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부른 땅에 속한 부름은 물질적인 땅을 소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우리가 쫓아가는 쫓대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누림이며 그 상은 그리스도에 대한 뛰어난 누림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의 이러한 뛰어난 부분이 천년 왕국에 있으리라 믿는다.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자들은 최상의 특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최상의 누림은 11 절의 뛰어난 부활과 일치한다. 이러한 뛰어난 부활은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 중

소수의 학생들의 체험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졸업시에 소수의 뛰어난 학생들은 특별한 영예를 누릴 것이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같은 때에 졸업하지만 적은 숫자만이 이러한 특별한 명예를 누릴 것이다. 이와 같이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모든 믿는이들이 부활하지만 몇 사람만이 뛰어난 부활, 최상의 부활을 누릴 것이다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의 뛰어난 부활을 신약의 경주장에서 승리한 모든 믿는이들에 대한 상으로 말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념은 틀린 것이다. 성경은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부활하리라고 계시한다. 요한복음 5 장 28 절부터 29 절까지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 있다. 첫 번째 종류는 생명의 부활이요, 두 번째는 심판의 부활이다. 죽은 모든 믿는이들은 생명 안으로 부활될 것이고, 구원 안으로 부활될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은 이들은 천년 왕국 후에 심판, 즉 멸망 안으로 부활될 것이다. 부활이 한 종류만이 아니라는 원칙의 빛 안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부활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부활한 믿는이들도 여전히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믿는이들과 믿지 않은 이들의 부활에 구분이 있을 뿐 아니라, 부활할 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구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단지 일반적으로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뛰어난 부활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다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는 부활의 특별한 분깃을 누릴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졸업을 누리는 소수의 뛰어난 졸업생들 같이 될 것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천년 왕국과 관계되는 3 장 14 절의 쫓대와 상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든지, 우리에게 도달해야 할 쫓대와 얻어야 할 상이 남아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나는 이 구절에 있어서 나의 해석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당신에게 쫓대와 그 상을 제시해 주고 싶다. 쫓대에 도달하고 상을 얻으려면 당신은 합당한 방법으로 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쫓대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그 상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믿는이로서 부활하리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말라. 그렇다. 당신은 부활 안에서 「졸업」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부활의 특별한 분깃을 얻을 것인가? 모든 믿는이들은 왕국에서 왕이 되리라는 가르침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퍼져 있다. 그러한 가르침의 영향아래 있지 말라. 모든 참된 믿는이들은 영원히 구원되었다. 그러나 상에 관한 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수준에 있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는 상을 주는 때가 될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인가 받지 못할 것인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경주를 했는가에 달려 있다.

...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할 때, 빌립보서 3 장의 문맥에 따라 그것들을 우리의 상황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하는 우리의 필요를 보여 준다. 그리스도는 뜻대요, 또 상이다. 당신은 뜻대에 도달할 때 어떤 종류의 상을 얻을 것인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길을 벗어나지 말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뜻대와 상으로 세워놓으신 것을 거룩한 계시에 따라 깨닫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은 뜻대를 향하여 추구하고도록 당신을 부르셨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23 장)

Thursday 2/10

빌 3:15-16

15 그러므로 누구든지 1 충분히 성장한 사람들은 2 이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3 계시하실 것입니다.

16 1 그러나 2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3 같은 규칙으로 4 행합시다.

각주에서 발췌

15' 즉, 성숙한, 온전한. 성숙은 단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숙했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성숙한 것은

아닐 수 있다. 여기에서 ‘충분히 성장한’은 상대적인 의미, 즉 상대적으로 성숙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이것은 어린아이 같은 것도 아니고 완전히 성숙한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더 힘을 다하여 추구하고, 더 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이 책에서는 빌립보의 믿는 이들을 다룰 때, 혼의 주도적인 부분인 생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책은 그들에게 인격화된 복음과 더불어 한 혼으로 함께 분투하고(빌 1:27), 같은 것을 생각하며, 혼 안에서 연결될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을 생각하고(빌 2:2, 4:2),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각이 그들 안에 있도록 하라고(빌 2:5) 당부한다. 또한 한 가지 생각, 곧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하고 그분을 최고도로 얻는 데 초점을 둔 생각을 가지라고 당부한다. 우리의 생각이 이러한 것으로 점유될 때,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갖게 되고 같은 것을 생각할 뿐 아니라, 심지어 한 가지 것-그리스도를 충만히 얻는 것-을 생각하며, 혼 안에서 연결되어 같은 혼이 되며(빌 2:20) 한 혼이 된다.

15'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이 외에 다른 어떤 일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각, 곧 힘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추구는 것에 초점을 맞춘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계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이키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조절하시기를 갈망하신다.

16' 이 말은 앞 절들을 걸른지으면서 우리에게 오직 이 한 가지 것, 곧 같은 규칙으로 행할 것을 당부한다.

16'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든지'는 '행합시다'를 수식한다.

16' 같은 노선, 같은 길, 같은 보조.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은 우리가 기본 원칙에 따라 같은 길로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16'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토이케오’이며, ‘질서 있게 행하다’라는 의미이다. 이 단어는 ‘규칙적인 선을 따라 정렬하다’, ‘군대 행렬대로 행진하다’, ‘보조를 맞추다’, ‘미덕과 경건을 본받다’ 등을 의미하는 ‘스테이코’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로마서 4 장 12 절, 갈라디아서 5 장 25 절, 6 장 16 절에서 사용되었다. 이 단어는 빌립보서 3 장 17, 18 절에서 사용된 ‘행하다’, ‘살다’와는 다른 단어인데, 그곳에서 사용된 단어는 로마서 6 장 4 절, 8 장 4 절, 13 장 13 절, 고린도전서 3 장 3 절, 갈라디아서 5 장 16 절, 에베소서 4 장 1, 17 절에서처럼 ‘살다, 행동하다, 종사하다, 처신하다’를 의미한다. 사도는 이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이르렀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같은 규칙으로, 같은 노선에서, 같은 길에서, 같은 보조로 행하고 생활을 조정하라고 당부했다. 영적인 생활에서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지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같은 규칙으로 같은 길에서 행해야 한다. 즉 뜻대를 향하여 힘을 다해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이신 그리스도를 충만한 정도로 얻기 위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5 장 각주 25 참조.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3 장 15 절에서 바울은 말한다.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달리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그러한 생각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계시하시어, 우리의 생각이 항상 그분의 중심에 맞춰지기를 원하신다.

15 절의 바울의 말은 다만 한 뜻대만이 있다는 그의 확신을 가리킨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바울은,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은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고 말할 수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뜻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이다.

...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바울은 16 절에서 같은 규칙에 의해 행해야 함을 말한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의 「행한다」는 헬라어 말이 기본적인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을 의미함을 보았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통제 원칙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 원칙은 우리를 합당한 하나 안에 보존할 것이다. 과거에 우리는 참된 하나의 입장이 우리를 진정한 하나 안에 지켜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가르침을 선포해야 한다. 그러나 유일한 하나의 입장은 어느 정도 외면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이것과 함께, 우리를 하나 안에 통제하고 보존하는 내적인 어떤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적인 것이 바로 바울이 「이러한 생각」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생각」이나 「유일한 길」 둘 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과 관계된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위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본적이고도 기초적인 원칙이 되어야 한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테디, 24 장)

Friday 2/11

빌 3:17-19

17 형제님들,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으로 삼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이들을 눈여겨보십시오.

18 내가 자주 여러분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만, 1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습니다.

19 1 그들의 최후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자기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의 수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을 2 땅의 일에 두는 사람들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18' 아마도 에피쿠로스학파(쾌락주의)의 철학을 실행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그 철학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빠지도록 조장했고, 그 밖의 일에서 자기만족을 구하도록 부추겼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반대되는 것이다. 3 장 2 절에서는 유대교도들이 빌립보 믿는 이들에게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보여 주며, 이 절에서는 에피쿠로스학파 사람들이 빌립보 믿는 이들에게 또 다른 손상을 입혔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자의 근원은 유대인들이었고, 후자의 근원은 이방인들이었다.

이 장에서 사도는 근본적으로 이 두 무리의 사람들 때문에 이와 같은 권유를 하게 되었다. 유대교도들에 관해 말하면서 사도는 빌립보 믿는 이들의 혼(빌 3:1-16), 특별히 생각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해 그들을 온전하게 했다. 또한 에피쿠로스학파 사람들을 암시하는 말을 하면서 사도는 믿는 이들에게 몸을 다루는 문제에 관해 가르쳤다(빌 3:17-21). 혼을 처리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우리는 몸을 다룰 때에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아야 하지만, 과도한 물질적 누림에 빠져서는 안 된다.

18²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육체의 욕망에 빠지는 것을 끝냈다(갈 5:24).

19¹ 이들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사람들이며, 그들은 자기들의 배를 숭상했고 또 섬겼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쾌락을 조장하면서 윤리나 도덕보다 육체적인 방종과 쾌락을 더 관심했다. 그들의 배가 곧 그들의 신(神)이었다.

19² 육체적인 것들, 물질적인 것들, 먹고 마시는 일들이다. 우리에게는 음식이나 의복과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다시 한번 지적하거니와, 바울은 1장과 2장에서 믿는이들과의 교통 후에, 3장에서 혼과 몸을 다루는 법에 관해 그들을 가르친다. 혼을 처리함에 있어 그들은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하고 그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야 했다. 종교적인 것은 그 어느 것도 보물로 여길 만한 것이 없다. 철학적인 것도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고, 문화적인 요소도 그분을 대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정죄하고 우리의 혼 안에, 특히 우리 생각 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혼을 처리하는 길이다.

물질적인 누림의 문제로 돌아선 후 바울은 17 절에서 말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라」 여기에서의 본(本)은 바울이 앞 구절들에서 다룬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에 그것은 물질적인 몸을 합당하게 다루는 자들에 의해 세워진 본(本)이다. 어떻게 우리는 17 절이 혼에 대한 것을 언급하지 않고 몸에 대한 것을 언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가? 18 절이 17 절을 설명하는 것임을 가리키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사실로써 알 수 있다. 18 절은 말한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육체의 몸의 정욕을 끝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었다.

...

바울은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을 때, 유대교도들과 에피쿠리언들이 교회 생활의 손상의 원인이었음을 깊은 속에서 알고 있었다. 믿는이들이 쾌락주의자들의 육체적인 향락의 방탕으로 잘못 인도될 위험이 있었다. 우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바울은 믿는이들로 하여금 혼과 몸을 다루도록 돕기 위해 빌립보서 3 장을 썼다. 우리에게는 오늘날 그러한 가르침의 말이 필요하다. 우리의 혼에 관하여, 우리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것들을 붙잡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는 국민적 특성의 종양을 기꺼이 제거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외과 의사에게 우리의 혼을 수술하여

모든 종양을 제거하시도록 허락해야 한다. 몸에 관하여, 우리는 주님의 표현을 위해 오래 살도록 합당하게 먹고 영양을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육체적인 것들에 대한 지나친 향락이나 방탕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쾌락주의자들의 실행을 삼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옷과 집과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빠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편으로 유대교도들을 거절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쾌락주의를 피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서 우리는 바울을 따르고 바울과 그를 따랐던 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테디, 25 장)

Saturday 2/12

빌 3:20-21

20 우리의 1 국적은 2 하늘들에 있으므로,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21 그분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자신의 1 운행에 따라서, 우리의 2 비천한 몸을 3 변형시켜 그분의 4 영광의 몸과 같은 형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각주에서 발췌

20¹ 혹은, 시민권. 이 헬라어는 ‘국적’, ‘생활 공동체’를 가리킨다.

20² 앞 절에 나온 ‘땅의’와 대조된다. 에피쿠로스학파의 철학을 실행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생각을 땅의 일에 두었지만, 우리의 국적은 하늘들에 있다.

21¹ 우리 몸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엡 1:19-22) 주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형된다. 이 능력은 우주 가운데 전능한 능력이다.

21² 우리의 타고난 몸을 가리킨다. 이 몸은 가치 없는 흙으로 만들어졌고(창 2:7), 죄와 약함과 질병과 죽음(롬 6:6, 7:24, 8:11)으로 손상되었다.

21³ 우리의 몸이 변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완결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먼저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하셨고(요 3:6), 지금은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고 계시며(롬 12:2), 결국에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키셔서 우리 존재의 세 부분을 다 그리스도와 똑같이 만드실 것이다.

21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킨다. 이 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셔져서(눅 24:26) 부패와 죽음을 초월한다(롬 6:9).

라이프스터디에서 발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 속한 것들이나 우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물질적인 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에 그렇게 높은 가치를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합당한 음식이나 의복이나 집이나 자동차를 소유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를 초과하는 것은 모두 방탕의 범주에 떨어지고 만다. 그러한 방탕은 정죄되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인간 생활을 위해 필요한, 땅에 속한 것들을 사랑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과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과 의복과 집과 자동차를 갖는다면 자족해야 한다. 땅에 속한 어떤 물질적인 것에도 우리 자신을 방임해서는 안 된다.

...

나는 이제 우리가 빌립보서 3 장에서의 바울의 기본 사상을 잡았으리라 믿는다. 3 장에서 바울은 우리의 혼과 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침을 준다. 우리 혼을 다루려면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 존재를 점유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최고도로 얻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몸을 다루려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지만 지나친 물질적 향락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몸을 합당하게 돌보는 것이다. 그 목적은 주님의 표현을 위하여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의도가 물질적인 것들의 누림을 통하여 육체적인 몸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몸은 이렇게 해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그때에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변형시키실 것이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완성인 우리 몸의 변형으로 이끌려질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물질적인 것들 안에 빠지지 않으면서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혼의 온전한 변화를 위해 종교적이고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김으로써 우리의 혼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변형시킴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 완성 안으로 이끄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혼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터디, 25 장)

찬송 (영한 동번): #378 (#499), #751 (#947), (#1205), #435 (#593)

Further Reading:

Life-study of Philippians, msg. 23, 53, 24, 55, 25